

가족다양화 시대, 1인가구 가족서비스의 방향 :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황정미
(사)한국여성연구소

목 차

1 배경

2 1인가구 진입경로와 유형별 특성 : 패널자료 재분석

3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혼자 살기” 경험

4 베이비붐 세대의 관계망과 삶의 질 : 1인가구와 다인가구

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인식과 정책 수요

6 제언: 가족지원 서비스의 방향

※ 본 발제문은 2020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모형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₁

1. 배경

- 1) 연구의 배경 : 개념정의와 1인가구 현황
- 2)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 지난 20~30년 동안 1인가구는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
- 2015년에는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최빈가구)이 되었으며, 2019년에는 1인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면서 전체 가구의 30%선을 돌파함.
- 1인가구의 규모가 커지면서 1인가구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청년과 노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중장년기(45세~64세) 1인가구는 전체 1인가구 중 32.9%, 약 1/3을 차지함.
- 기존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정책 전반의 새로운 수요, 그리고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각각 별도로 분석하는 경향 - 종합적인 관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며, 우선 베이비붐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 인구 총조사 자료에는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전체적인 규모와 성별·연령별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다 상세한 생활실태나 삶의 질,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패널조사 자료 재분석, 온라인 조사를 통해 중장년 1인가구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베이비붐 세대”

- 베이비붐의 기준은 출산율의 급등으로 인한 출생아 수의 증가를 의미함. 서구와 달리 한국의 경우 출산율 급등은 1950년대 중반에 있었으나 출생아 수의 급증은 1960년과 1971년을 정점으로 하는 두 번의 봉우리가 형성됨(김태헌, 2010).
-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1차(1955~64년 출생)와 2차(1965~74년 출생)를 모두 포함하며(정경희 외, 2010), 현 시점에서 45~64세 연령에 해당함.
-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노년층에 진입한 ‘전후세대’에 비해 다른 특성을 갖는 ‘신노년’이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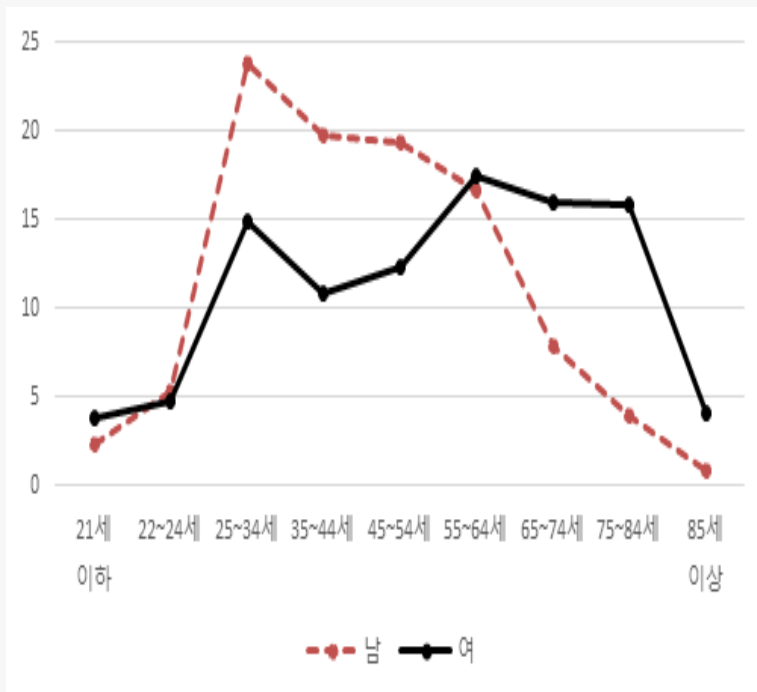
“1인 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통계청))
- 결혼이나 배우자(동거인) 유무와 상관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문정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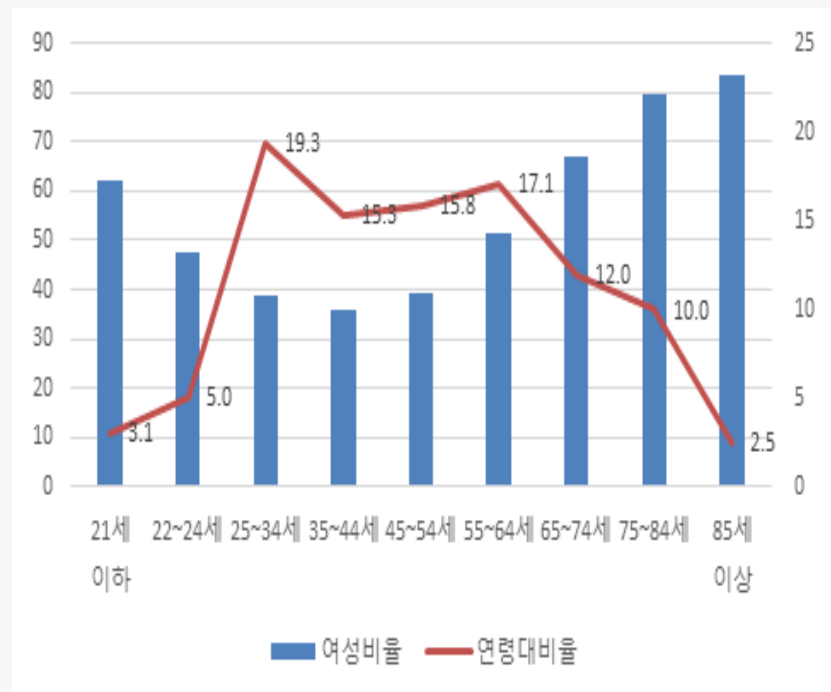
1인가구 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비중 (2017년)

(자료: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재분석)

성별 연령별 1인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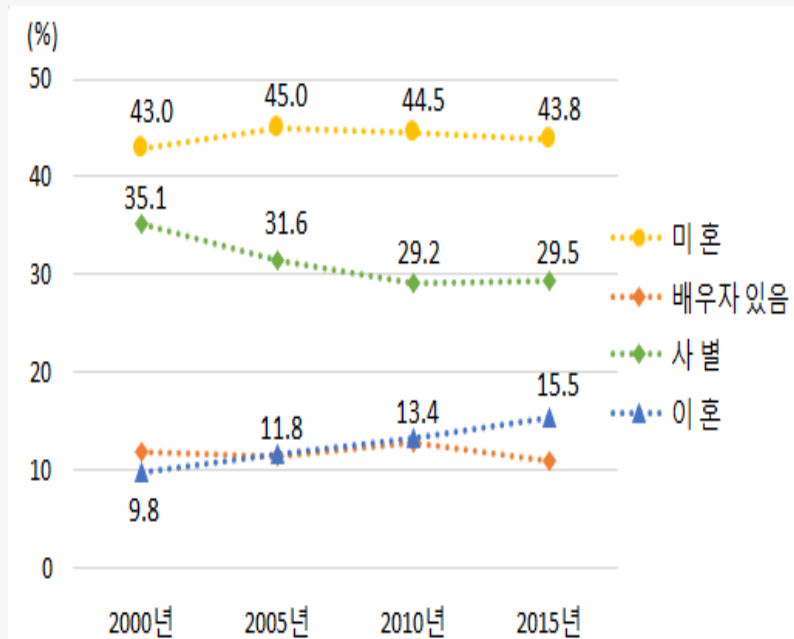


연령대별 여성비율 및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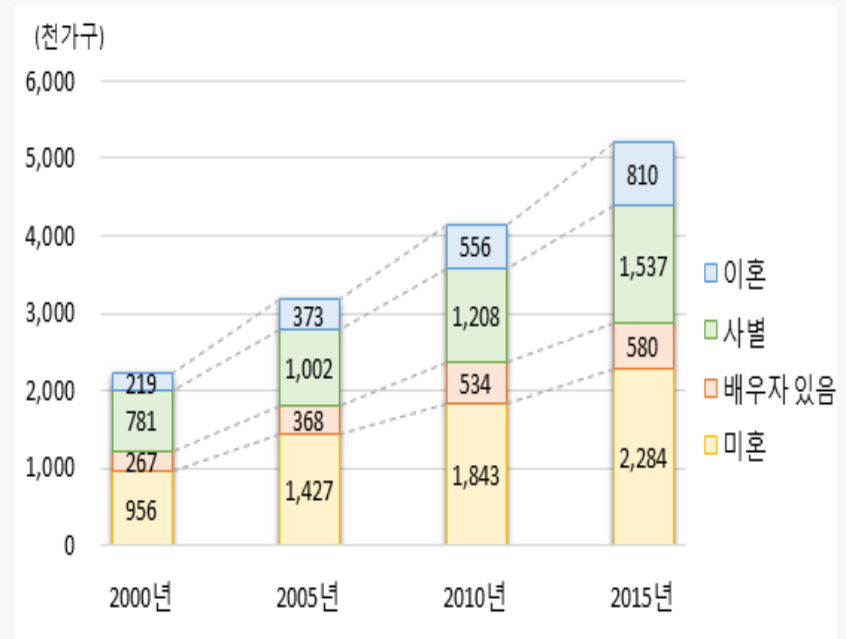


1인가구 혼인상태 비율 및 분포 (자료: 통계청, 2018)

1인가구 혼인상태별 비율: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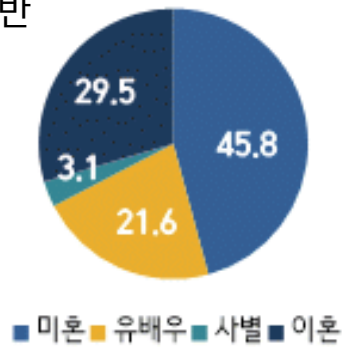
1인가구 혼인상태별 분포: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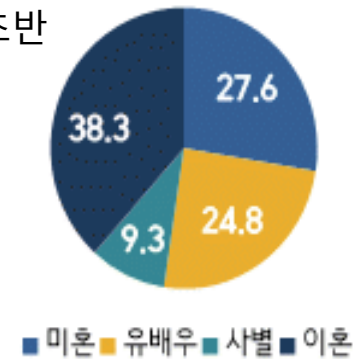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 연령별 혼인지위 분포

(자료 : KOSIS,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1인가구 자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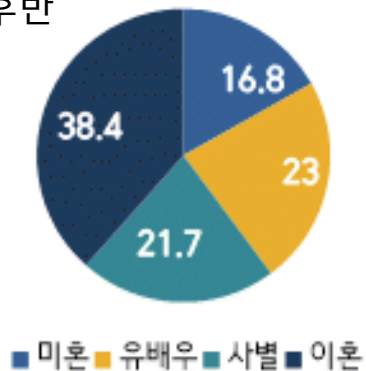
40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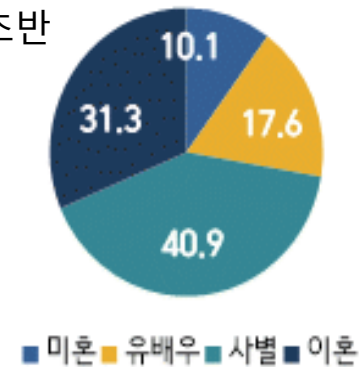
5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2) 연구 방법

원자료 재분석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2006~2019)에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지난 14년간 주거배열 형태 변화를 분석하고, 최적일치법을 이용하여 1인가구로 진입하는 경로를 유형화, 군집별 특성을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

전국규모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1300명(1인가구 500명, 다인가구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1인가구 생활 실태, 차별경험, 가족관계 등 관계 만족도, 삶의 질 등을 분석함. 응답자는 통계청 인구 총조사,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근거로 성별 · 연령별 · 거주지역별 할당비율을 설정(조사기간: 2020. 8. 25 ~ 9. 7.)

문헌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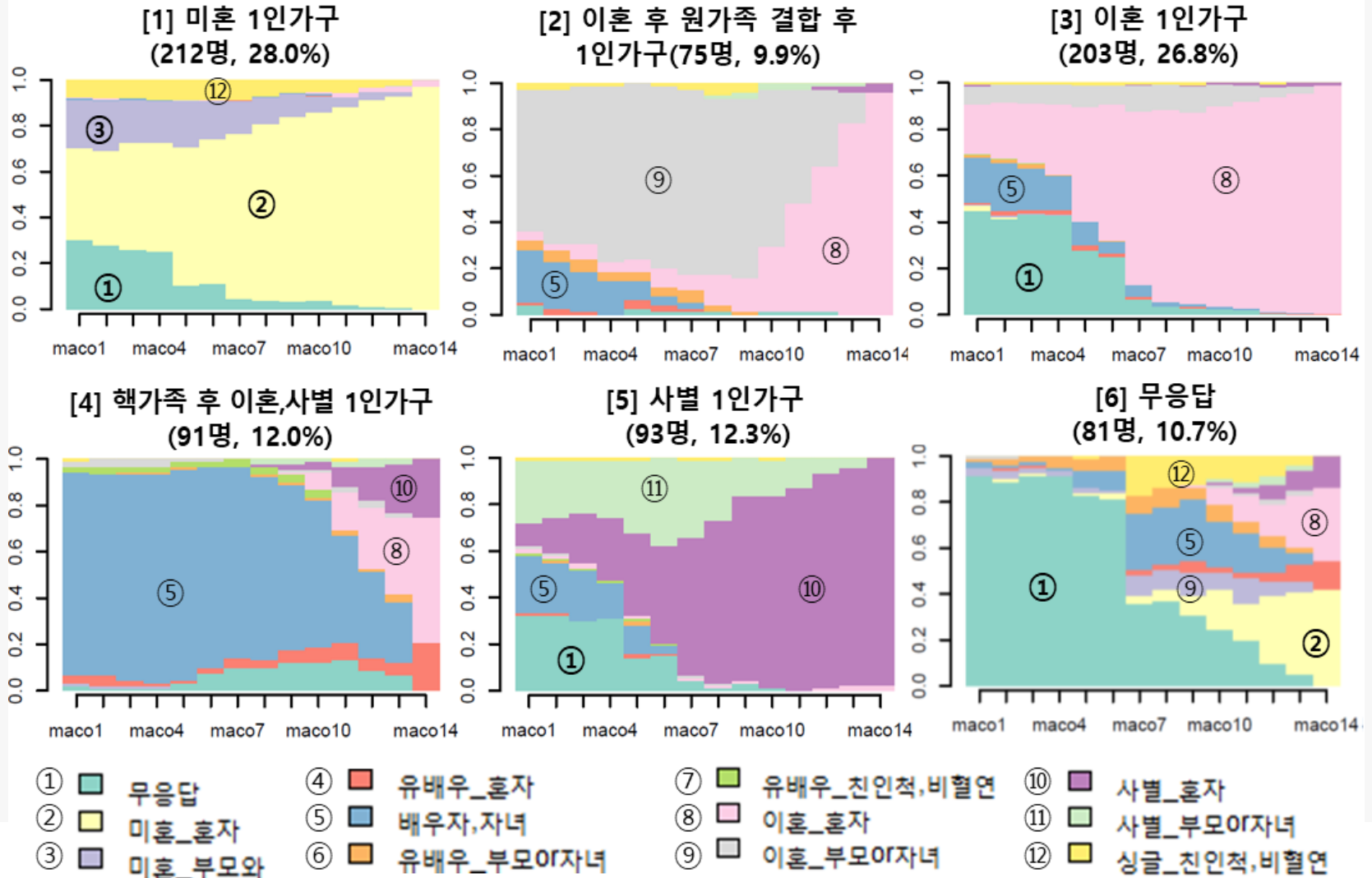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외 베이비붐 세대 관련 주요 정책 사례, 전달체계 모델 등을 검토

2. 1인가구 진입경로와 유형별 특성 : 패널자료 재분석

패널자료 재분석 : 지난 14년 간의 생활배열 변화 추적

- 베이비부머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1인가구로 진입하는 경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 두 자료에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응답자(n=865)를 추출하여 분석
- 패널자료는 현재 1인가구로 살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 14년간 누구와 함께 살아왔는지 '생활 배열'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
- 현재 1인가구인 응답자가 지난 14년 동안 어떤 혼인지위에서 누구와 같이 살았는지의 시계열적 변화를 유형화 : 혼인 상태와 가구구성 상태를 결합한 '혼인-동거배열'을 최적일치법에 근거하여 유형화한 결과, 6개의 군집("무응답" 제외하면 5개 군집)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됨

혼인-동거배열 군집별 상태분포 그래프 (x축: 시간, y축: 사례 누적 분포)



6개 군집 - 특징 요약

번호	사례수	유형 명	주요 특성	
1	212 (28.0%)	미혼 1인가구	40대 후반 고학력 상위직 남성형	'미혼-혼자' 9.8년 남성 72.2%, 45-49세 42.9%, 초대졸 이상 34.0%, 관리·전문직 24.7%
2	75 (9.9)	이혼 후 원가족결합 후 1인가구	55세 이상 저학력 하층 여성형	'이혼-부모나 자녀' 8.2년, '이혼-혼자' 3.8년 여성 61.3%, 55-64세 72%, 이혼·별거 96.0%, 중졸 이하 37.3%, 소득 2분위 43.8%
3	203 (26.8)	이혼 1인가구	55세 이상 빈곤층 장기이혼 별거형	'이혼-혼자' 9.1년 55-64세 65%, 이혼·별거 97.5%, 소득 1분위 50.5%
4	91 (12.0)	핵가족 후 이혼·사별 1인가구	55세 이상 고학력 상층 최근이혼 별거형	'배우자 및 자녀 동거' 9.4년, '이혼-혼자' 1.4년 55-64세 67.1%, 초대졸 이상 22.5%, 소득 4분위 이상 14.8%
5	93 (12.3)	사별 1인가구	60대 저학력 빈곤층 여성형	'사별-혼자' 8.1년 여성 91.4%, 60-64세 72.0%, 사별 97.8%, 중졸 이하 72.0%, 임시일용직 34.4%, 비취업 30.1%, 소득 1분위 59.8%
6	81 (10.7)	무응답		무응답 6.9년

1인가구 진입경로에 따른 특성 - 1인 가구 내부의 다양성

- [군집 1] “미혼 1인가구”는 남성(72.2%), 미·비혼자(97.0%)가 많음. 40대 고학력 상위직 남성형의 특성 보임.
- 이혼·별거 후 1인가구가 된 [군집 2, 3, 4]- 55세 이상이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남
- [군집 2] 이혼 후 원가족과 결합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1인가구가 된 유형이며 ‘55세 이상 저학력 하층 여성형’이라는 특징 보임
- [군집 3]은 이혼 후 평균 혼자 생활한 기간이 9.1년으로 가장 길며, 성별, 학력, 직종 등의 분포가 고른 편이지만 절반 이상이 소득1분위에 속해있어 ‘55세 이상 빈곤층 장기이혼·별거형’
- [군집 4]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한 기간이 평균 9.4년으로 가장 긴 집단-‘55세 이상 고학력 상층 최근 이혼·별거형’
- [군집 5] “사별 1인가구”, 주로 60대 저학력 빈곤층 여성들로 구성됨.

1인가구 진입경로에 따른 특성 - 다양한 정책 수요

- 패널자료 재분석 결과 중장년 1인가구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다시금 확인됨.
- 군집별로 삶의 질 조사결과에 차이를 보임
- “미혼 1인가구”(군집 1)는 건강이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가족관계나 사회 관계, 여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이혼 후 1인가구”(군집 3)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6개 군집 중 가장 낮은 편이며, 특히 건강, 가족관계, 여가 만족도 점수가 다른 1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혼 후 장기간 혼자 생활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

	① 미혼 1인가구	② 이혼 후 원가족결합 후 1인가구	③ 이혼 1인가구	④ 핵가족 후 이혼, 사별 1인가구	⑤ 사별 1인가구	⑥ 무응답
주관적 건강	3.31	3.24	3.14	3.3	2.9	3.15
수입 만족도	2.86	2.88	2.77	2.89	2.86	2.74
주거 만족도	3.28	3.29	3.3	3.36	3.46	3.27
가족관계 만족도	3.25	3.53	3.21	3.34	3.75	3.33
사회적 관계 만족도	3.32	3.69	3.33	3.42	3.6	3.32
여가 만족도	3.1	3.09	3.02	3.09	3.19	3.1
전반적 만족도	3.19	3.36	3.12	3.28	3.35	3.26

3.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혼자살기” 경험

- 1) 혼자 사는 이유
- 2) 삶의 만족도
- 3) 불편과 어려움
- 4) 불이익 경험
- 5) 편견이나 무시당한 경험

온라인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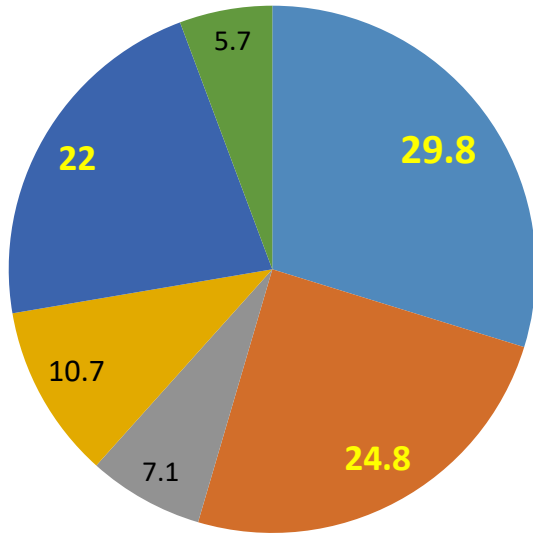
-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베이비부머 1인가구 (n=500)의 “혼자 산” 기간과 연령 별/성별/혼인지위별 분포 : 미혼집단에서 장기간 1인가구 생활을 한 사례가 많이 표집되고, 유배우가 다소 많은 경향이 나타남

항목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합계	x ²	(명)	
전체	43.6	20.4	9.8	11.2	15.0	100		(500)	
연령	45-49세	31.9	29.3	14.7	15.5	8.6	100	26.999**	(116)
	50-54세	50.0	18.6	7.6	8.5	15.3	100		(118)
	55-59세	47.4	15.6	7.4	8.2	21.5	100		(135)
	60-64세	44.3	19.1	9.9	13.0	13.7	100		(131)
성별	남성	42.6	19.6	9.81	13.5	14.6	100	3.188	(275)
	여성	44.9	21.3	9.8	8.4	15.6	100		(225)
혼인지위	미혼비혼	25.3	19.2	12.6	14.7	28.3	100	79.828***	(198)
	유배우	61.7	20.65	5.0	5.7	7.1	100		(141)
	사별이혼별거	50.3	21.7	10.6	11.8	5.6	100		(161)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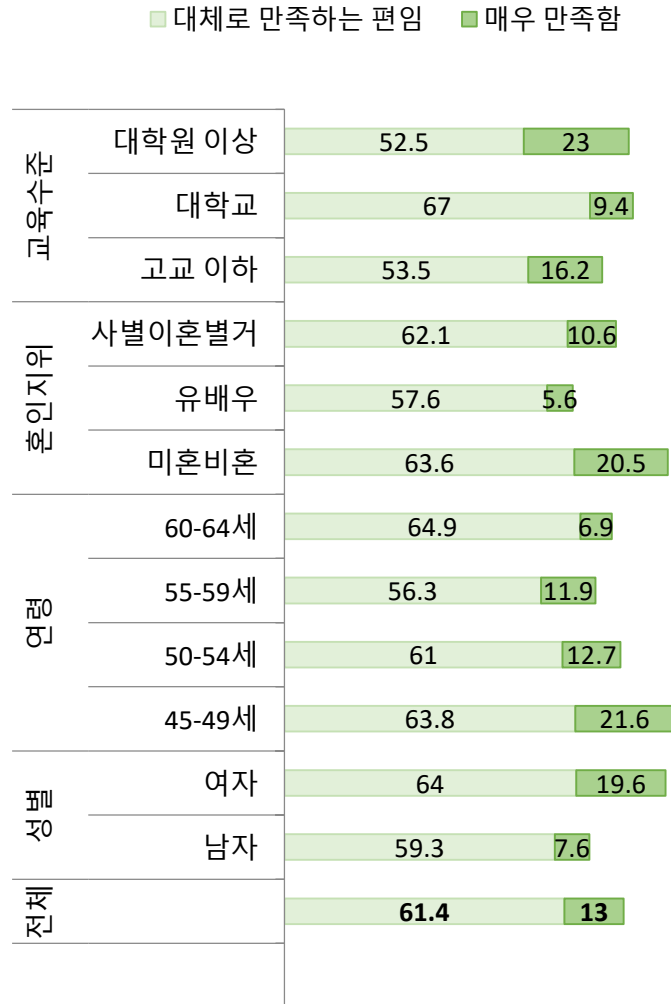
1) 혼자 사는 이유



- 학교/직장 때문에
-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때문에
- 부모/형제자매의 사망 혹은 관계단절
- 함께 살던 자녀의 독립(기러기 가족 포함)
-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 마땅히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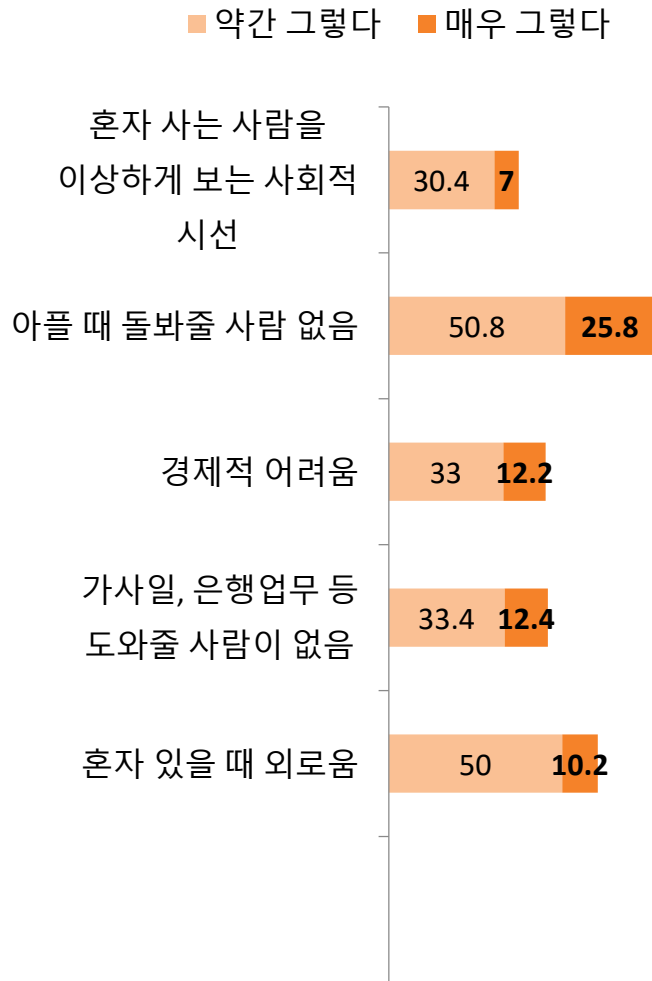
- 베이비부머 1인가구가 현재 혼자 생활하는 이유는 “학교/직장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29.8%),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때문에”(24.8%),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2.0%) 순임.
- 혼인관계 변동(사별/이혼/별거)으로 혼자 산다는 응답은 40대 후반에서는 7.0%에 불과했으나, 60대 초반에서는 34.9%로 증가함. 60대 초반은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독립으로 인한 것도 20.9%로 높게 나타남.
- 자유롭게 살고 싶어 혼자 산다는 응답은 젊은 층에서 높음 (40대 후반, 37.4%). 베이비부머 중 젊은 층일수록 가족 사유보다는 학교/직장 사유 및 혼자 사는 자유가 1인가구 형성을 추동하는 것으로 보임.

2) 혼자 사는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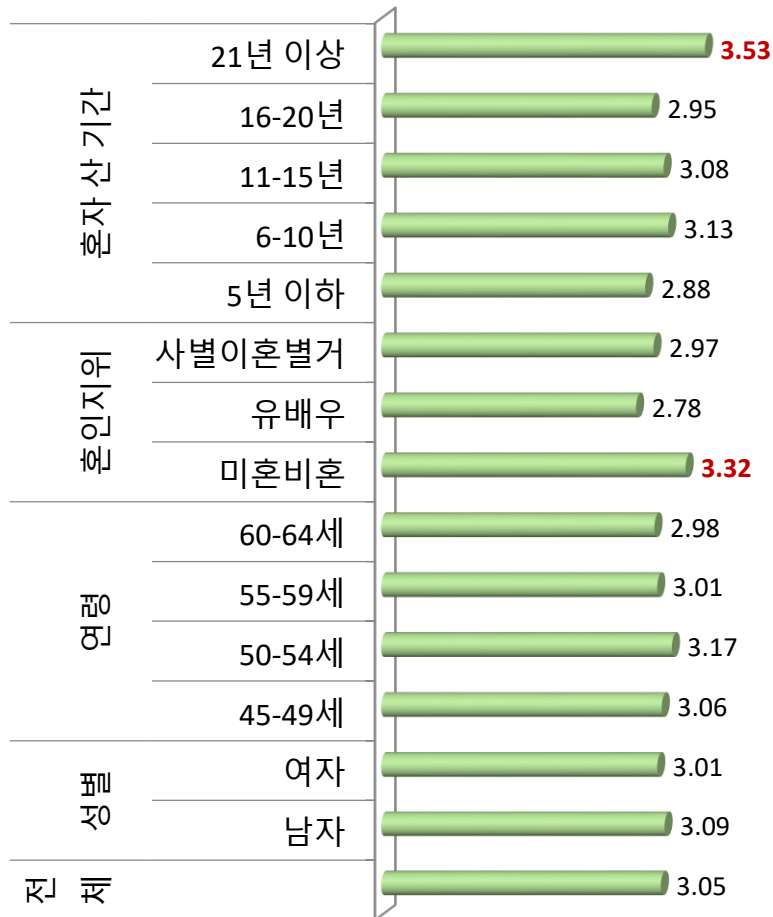
- 조사대상 1인가구 중 74.4%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대체로 만족+매우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1인가구 여성의 83.6%가 매우 만족, 혹은 대체로 만족하는 편
- 연령별 만족도는 40대 후반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일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85.4%). 이에 비해 60대 초반의 만족도는 약간 떨어져 71.8%의 만족 응답률
- 미혼, 고학력,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취업 1인가구일수록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가구소득이나 주관적 소득계층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3)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



-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76.6%)”과 “외로움(60.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25.8%에 이룸. 1인가구가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함.
- 가사일 등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49.9%)에 여성(45.1%)보다 약간 높음. 반면, 경제적 어려움은 남성(41.8%)보다 여성(49.3%)이 더 많이 느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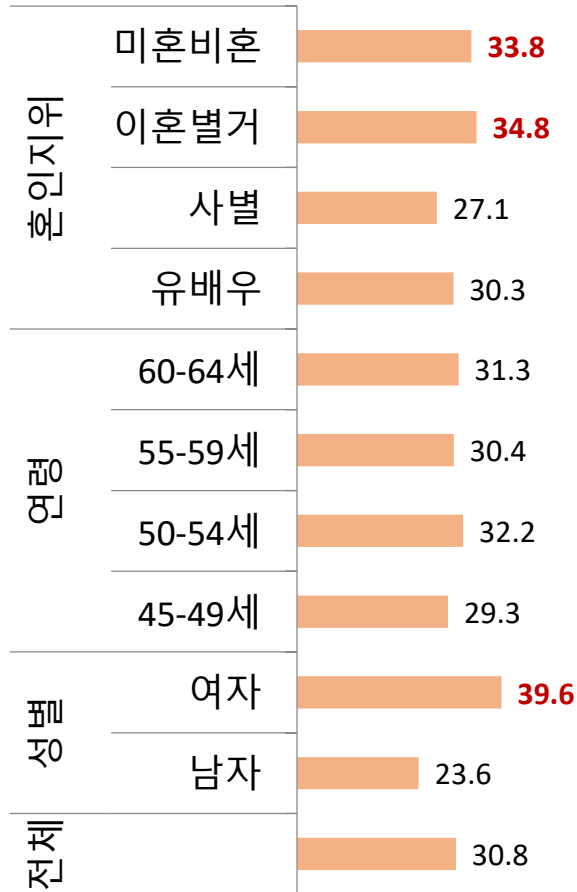
4) 혼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은 경험 (5점 척도 평균점수)



- 혼자 산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주택마련 등 복지서비스, 사회적 혜택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6%**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혼인지위별로는 미혼/비혼자의 점수(3.32점)가 높게 나타났다.
- 혼자 산 기간이 길수록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증가하며, 특히 21년 이상 장기간 혼자 생활한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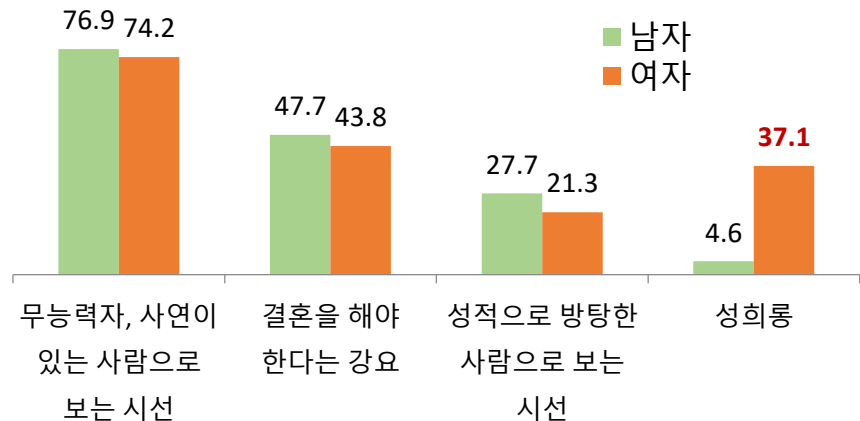
5) 편견이나 무시당한 경험

편견/무시당한 경험 있음(%)



- 혼자 산다는 이유로 무시나 편견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0.8%
- 어떤 무시나 편견을 당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중복 응답)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성희롱을 당했다는 응답은 특히 여성 경험집단에서 높게 나타남(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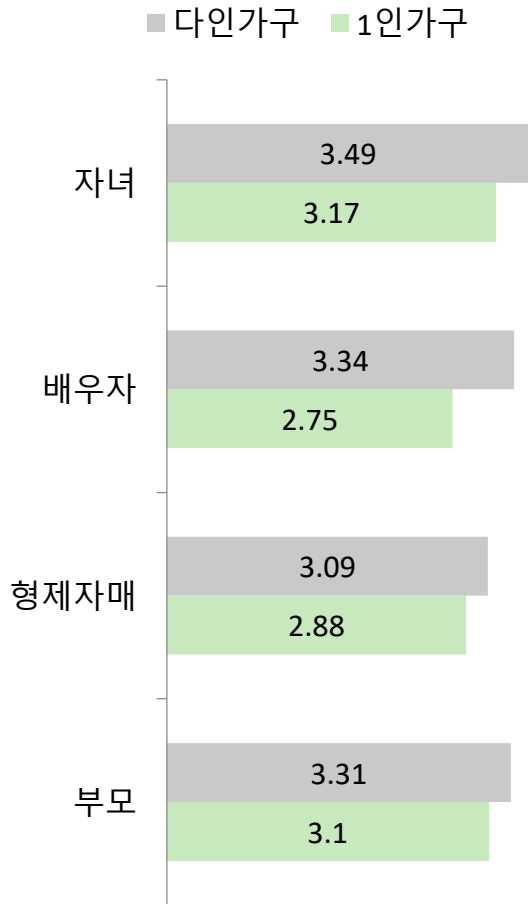
편견/무시당한 경험의 종류: 성별 비교 (%)



4. 베이비붐 세대의 관계망과 삶의 질 : 1인가구와 다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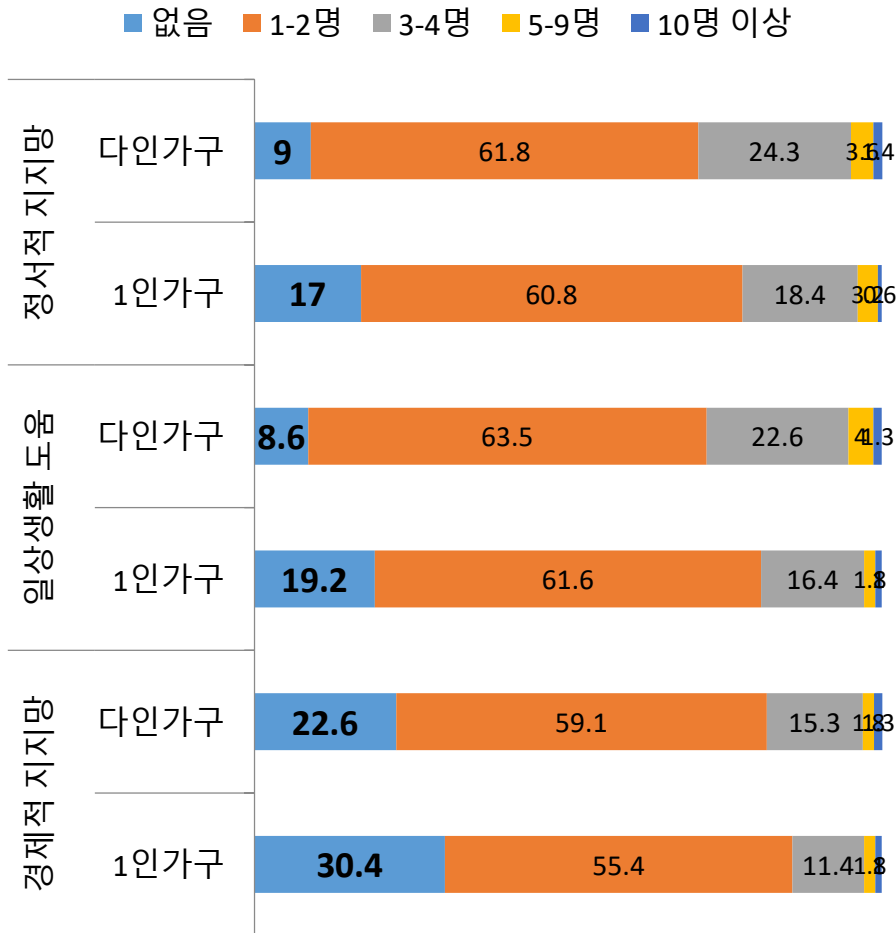
- 1) 가족관계 만족도
- 2) 사회적 관계망
- 3) 삶의 만족도 : 4가지 영역
- 4) 정서적 건강상태

1) 가족관계 만족도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4점척도 평균점수)



-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1인가구 중에서도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남.
- 한 예로, 부모관계 만족도의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이 “중상층”인 집단에서는 다인가구(3.41)보다 1인가구(3.44)에서 만족도가 더 높음.
- 반면 주관적 경제수준이 “하층”인 집단에서는 다인가구(3.18)보다 1인가구(2.86)의 만족도가 더 낮아짐.
-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 내부의 다양성이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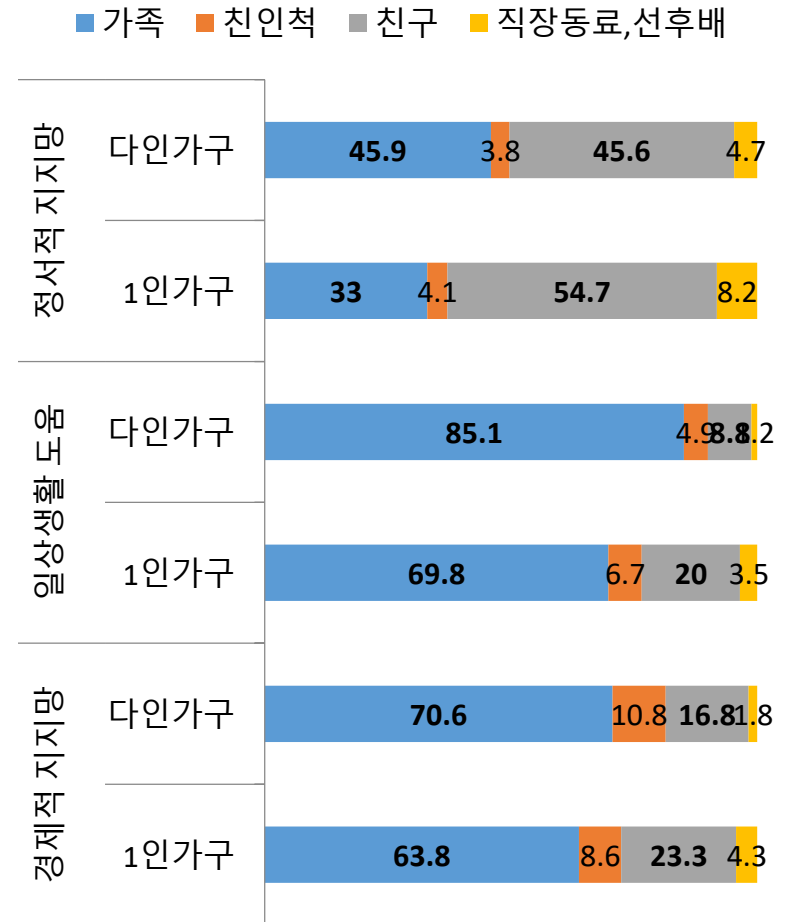
2) 사회적 관계망 : 경제적/일상생활/정서적 지지망 (단위: %)



- 사회적 관계망을 경제적/일상생활/정서적 지원으로 나누어, 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각각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함.
- 경제적 지지망, 일상생활 도움, 정서적 지지망 3 영역 모두에서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사회적 관계망 자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률이 1인가구에서 높은 편이었으며, 경제적 지지망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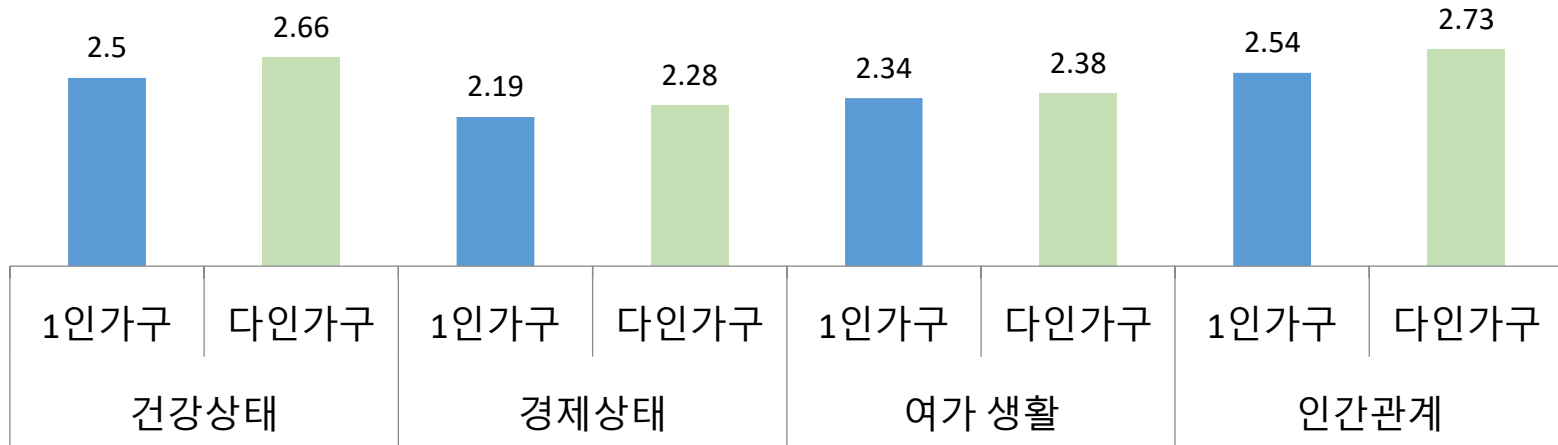
2) 사회적 관계망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조사함.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족’ 관계망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세 가지 관계망 영역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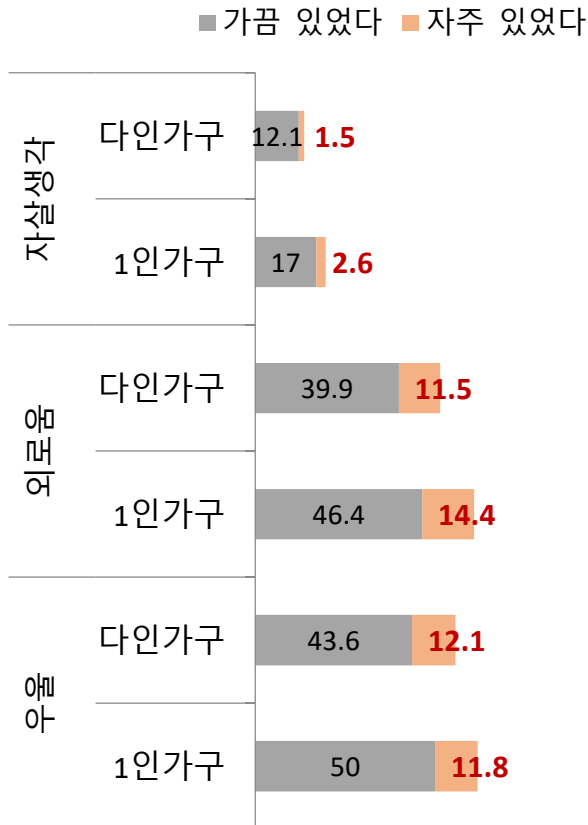
3) 삶의 만족도 : 4가지 영역

(단위: 4점척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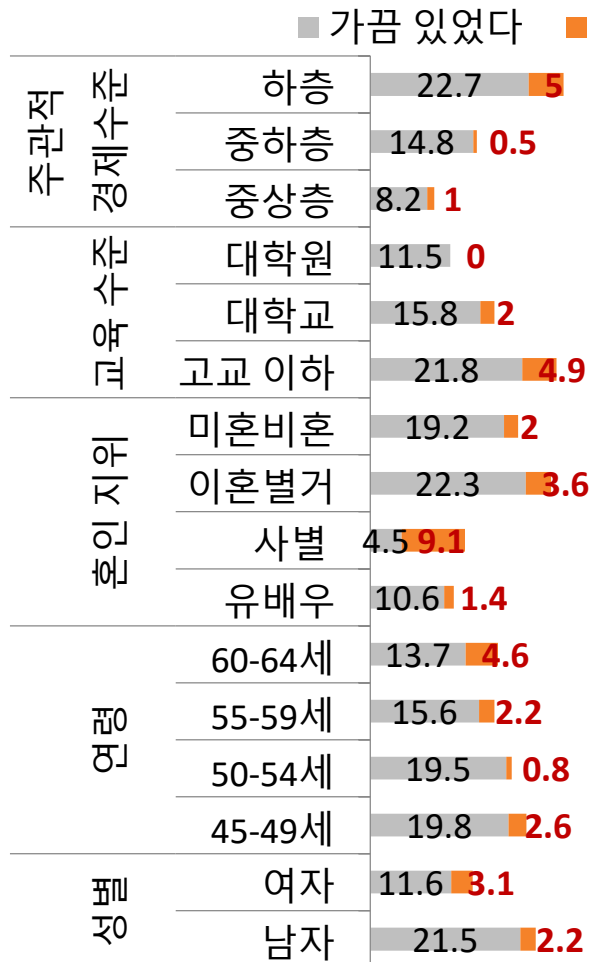
- 건강상태, 경제상태, 여가생활, 인간관계 등 4가지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다소 낮음.
- 특히 건강상태, 인간관계 만족도 영역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
- 즉, 1인가구는 건강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같은 연령대의 다인가구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가족지원 서비스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임.

4) 정서적 건강상태



- 지난 1년간 우울감, 외로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우울에서는 가구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로움, 자살생각**은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울이나 외로움에서 여성들은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남성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1인가구 남성 중 60%가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반면, 다인가구 남성은 47.3%로 훨씬 낮음. 외로움을 느낀 경험도 1인가구 남성은 62.5%, 다인가구 남성은 47.8%로 큰 격차를 보임. 이는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이행할 때 여성보다 남성이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안게될 가능성을 함축함.

4) 정서적 건강상태 - 1인가구의 자살생각 경험



- 1인가구 남성의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지난 1년 자살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했다는 비율은 남성이 각각 21.5%, 2.2% 이며 여성은 11.6%, 3.1%였다. 1인가구 남성의 약 1/4 정도가 자살생각을 가끔 또는 자주 한다는 조사결과는 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1인가구에서 자살생각은 특히 교육 수준이 낮고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하층일 경우 더 높다. 취약 조건들이 중첩된 집단에서 위험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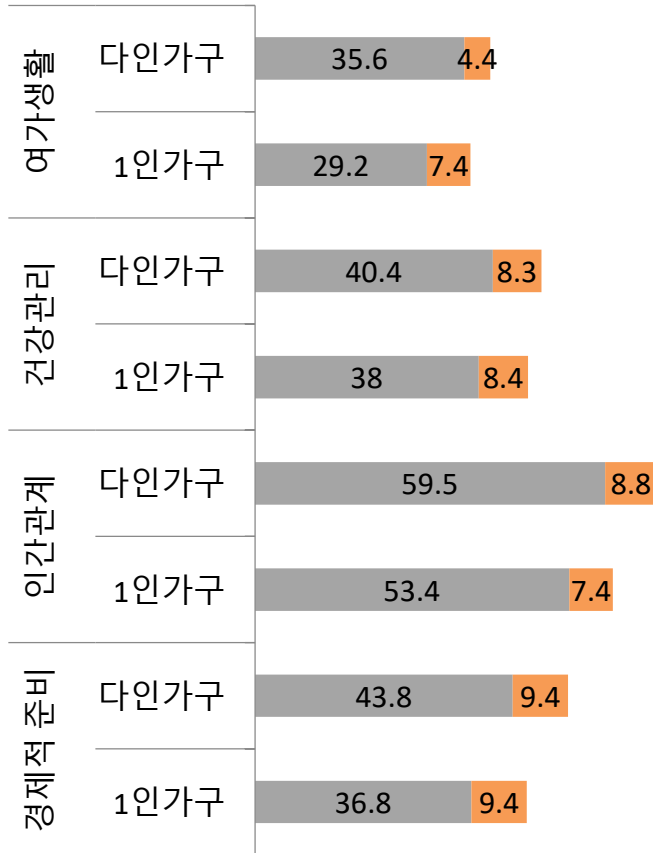
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인식과 정책 수요

- 1) 노후 준비 : 1인가구와 다인가구
- 2)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 1인가구와 다인가구
- 3)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까
- 4) 노후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
- 5) 서비스 이용 방식 선호
- 6)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
- 7)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시설/공적 서비스 수요

1) 노후 준비 : 1인가구와 다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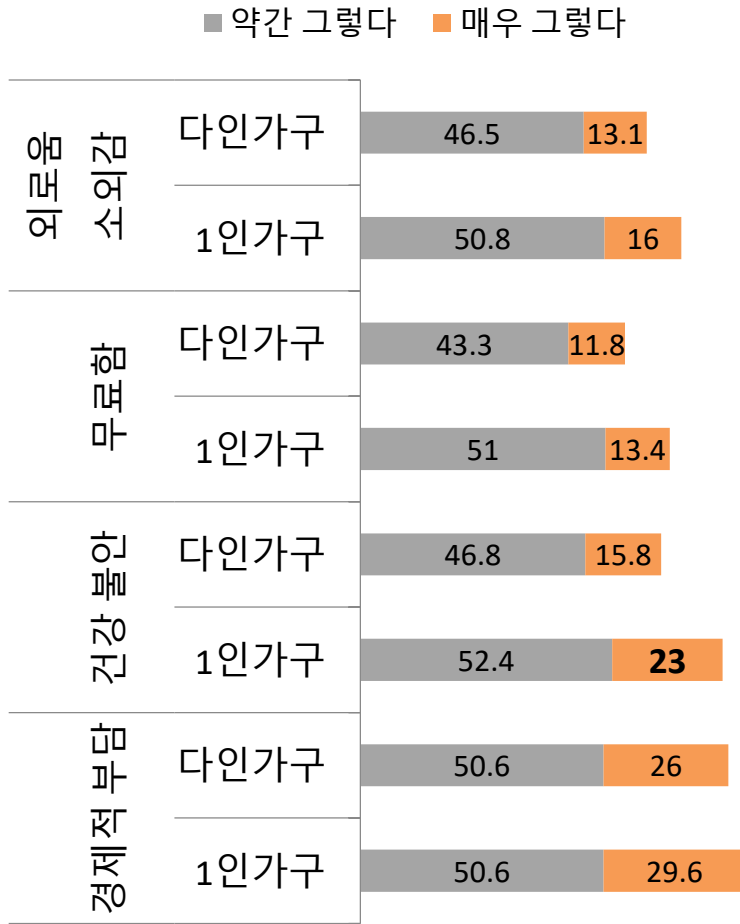
(단위: %)

■ 약간 준비함 ■ 적극 준비함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대비를 경제적 준비,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 유지, 건강과 체력관리, 여가 생활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
- 1인가구는 경제적 준비, 인간관계 영역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낮은 경향
-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네 가지 노후대비 영역 모두에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거 형태가 안정적인 집단에서 노후 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2)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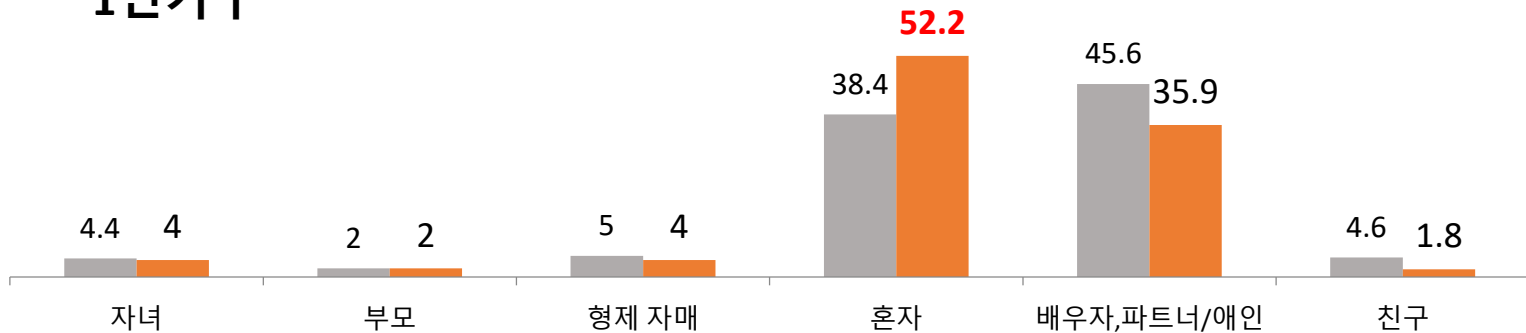
- 경제적 불안의 경우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에서 불안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80.2%, 76.6%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
- 노후에 몸이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1인가구(75.4%)가 다인가구(62.6%)보다 12.8% 포인트가 높음
- 1인가구에서는 다인가구에 비해 무료함/ 외로움에 대한 불안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함 -1인가구 이면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노후의 무료함이나 소외감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남

3)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까 : 1인가구와 다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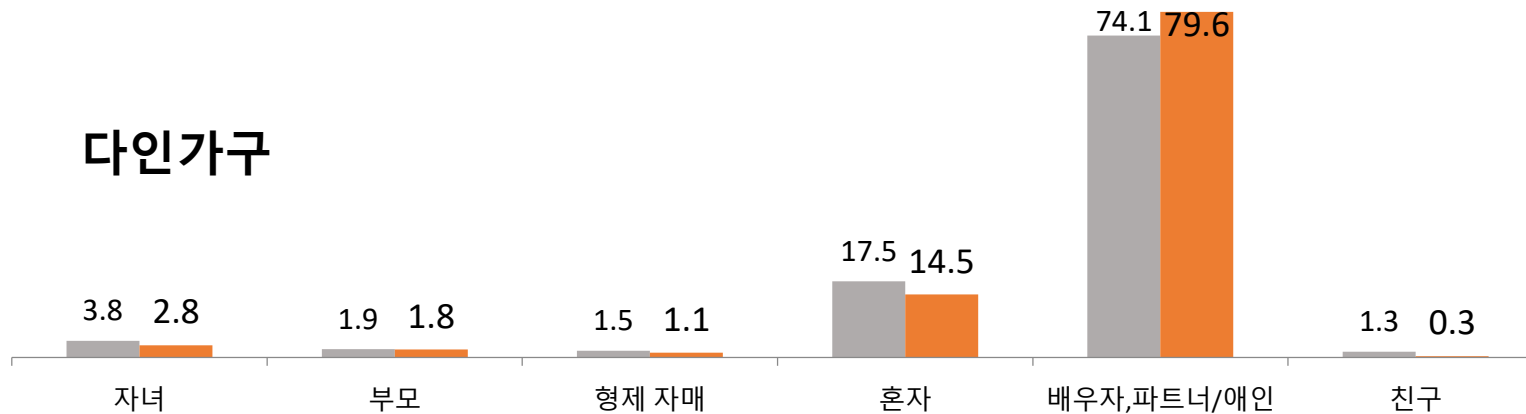
(단위: %)

■ 희망하는 노후생활 동반자 ■ 노후에 함께 살 사람: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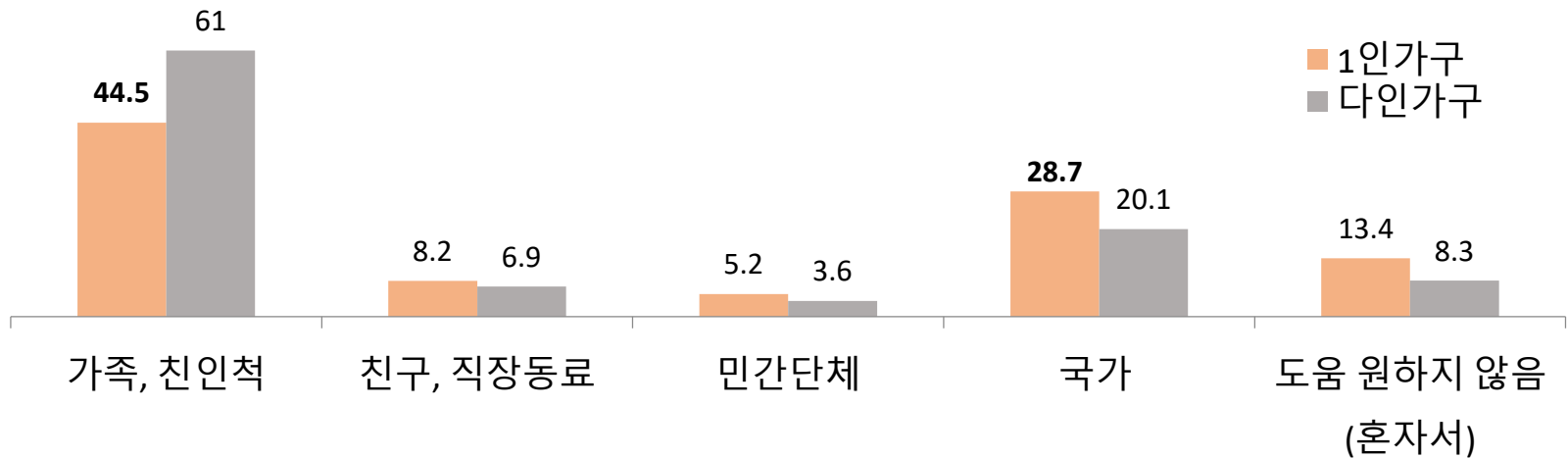
1인가구



다인가구



4) 노후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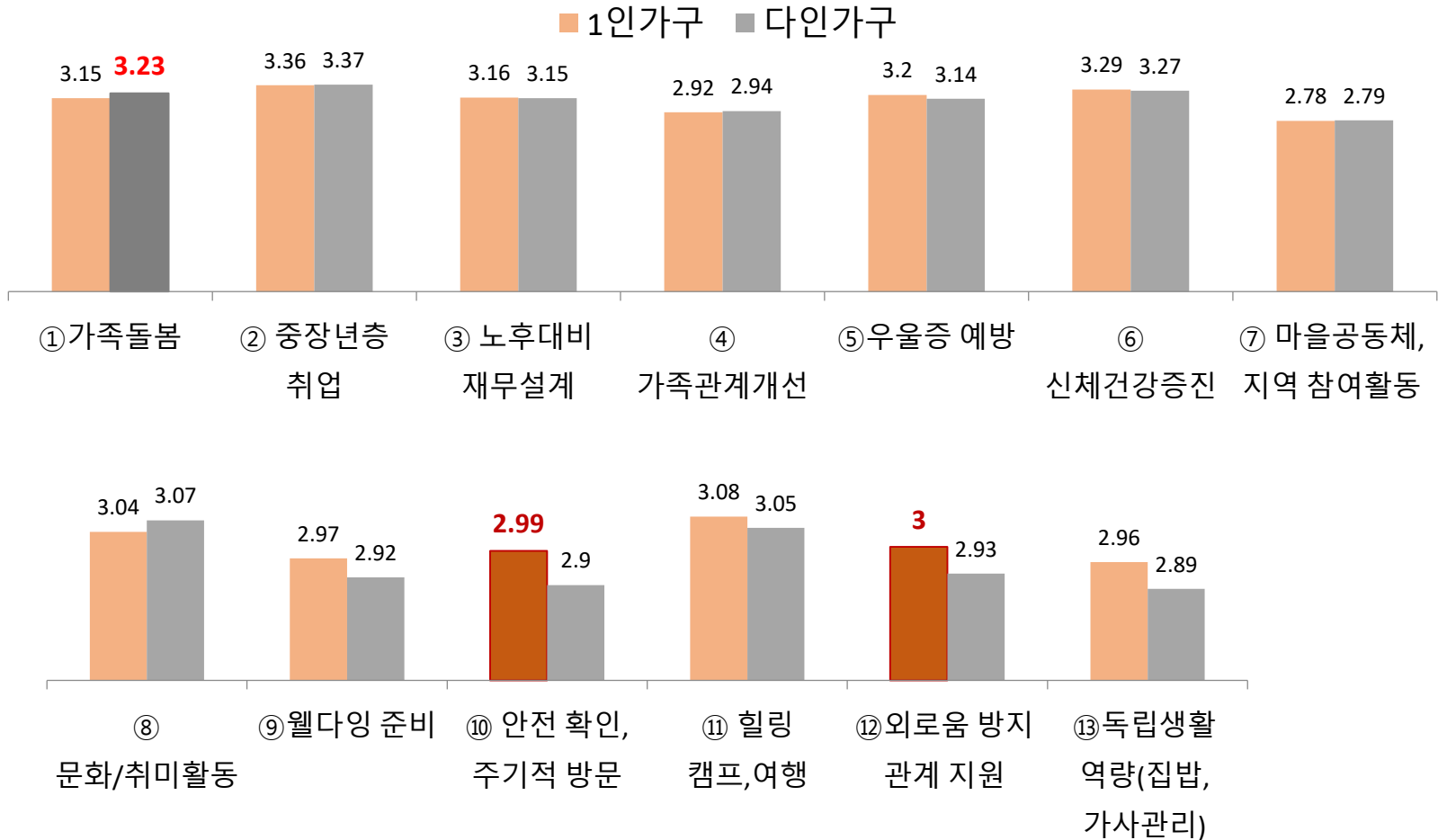
- 노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가족, 친구, 국가나 정부 중 주로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지 조사함
-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다인가구는 60% 이상이 가족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는 같은 세대의 다인가구에 비해 노후에 가족지원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이며, 그 대안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노후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5)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방식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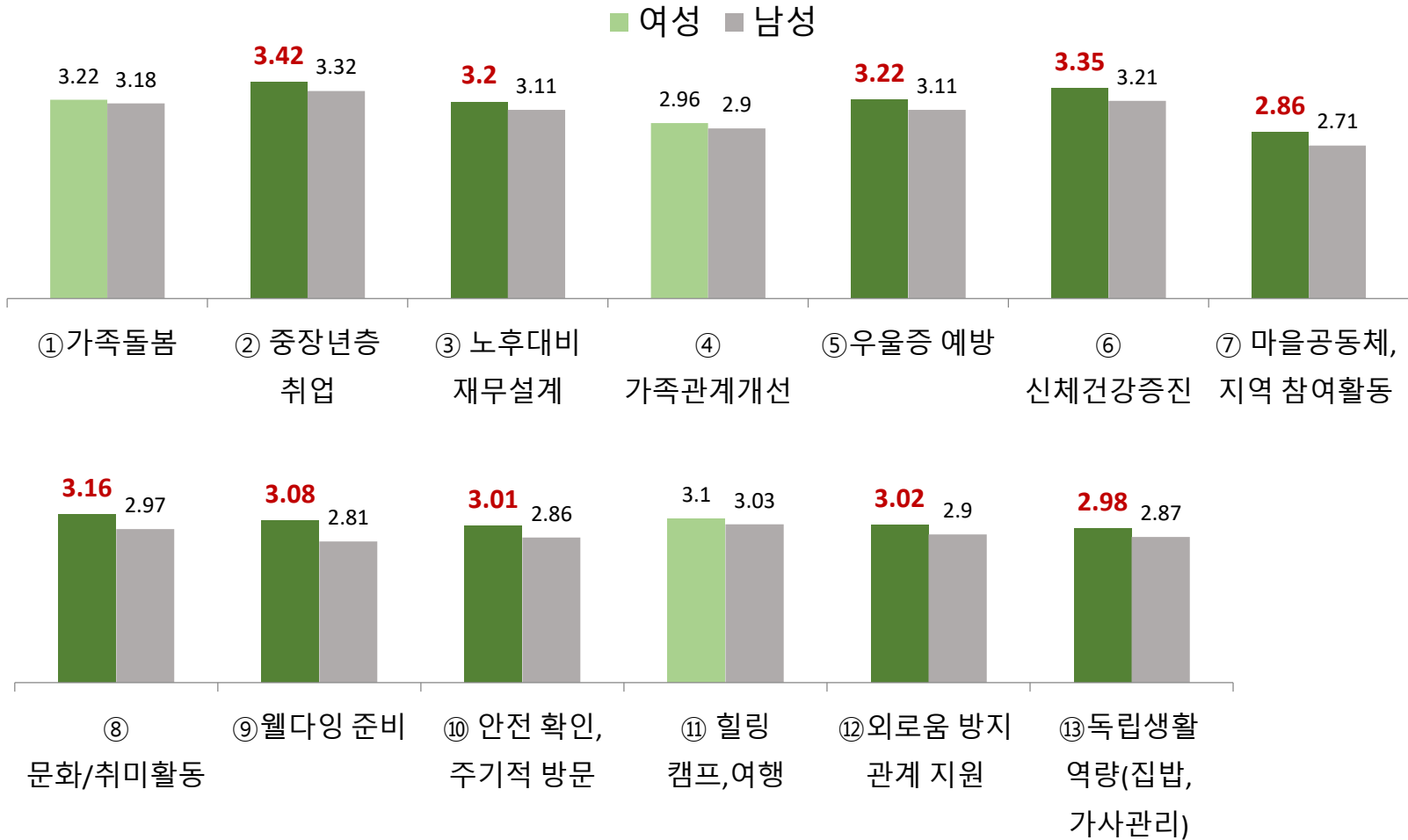
		주민/가족센터 등 방문	1:1 코디네이터 연락	앱/ 홈페이지 이용	(명)
전체		23.6	37.9	38.5	(1300)
성별	남자	23.8	37.7	38.6	(677)
	여자	23.4	38.2	38.4	(623)
가구 형태	1인가구	20.0	40.0	40.0	(500)
	다인가구	25.9	36.6	37.5	(800)

- 서비스 이용 방식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기관이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일대일 연락이나 앱/홈페이지 이용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 1인가구 내부의 응답 차이 : 대학교 이상 고학력층에서는 고교 이하의 저학력층에 비해 비대면 방식(앱/홈페이지 이용)을 더 선호함. 저학력층은 가족센터 등 공공기관 방문이나 일대일 코디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6)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 : 1인가구와 다인가구 (4점척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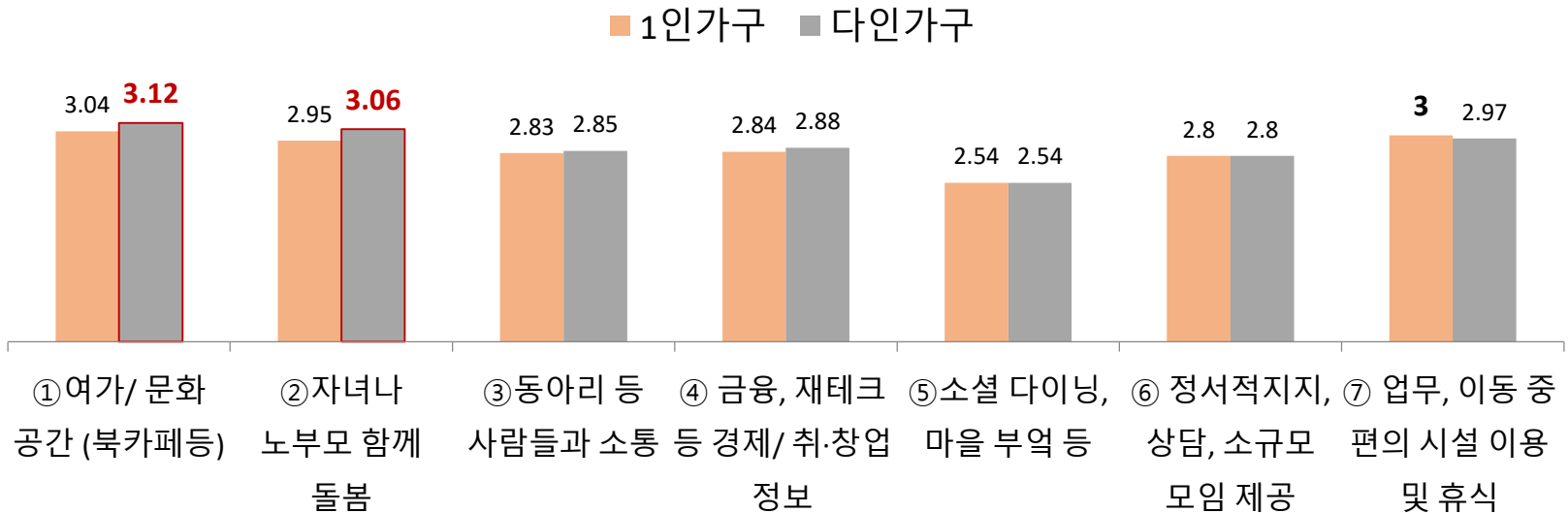
6)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 : 성별 (4점척도 평균점수)



6)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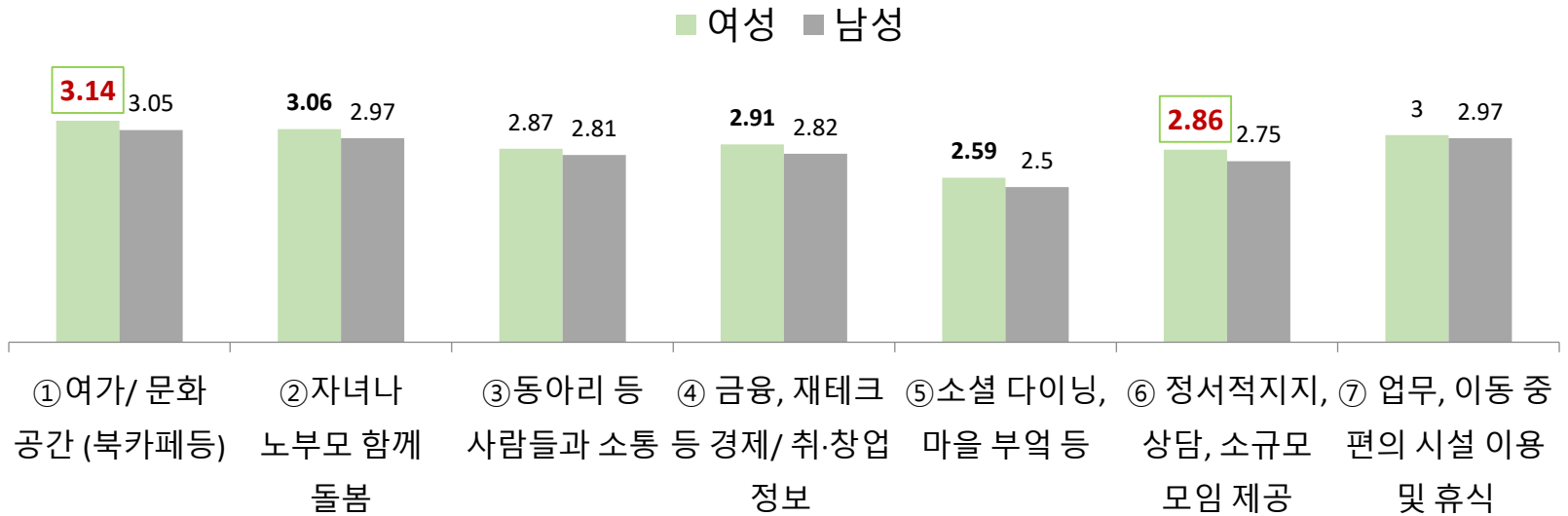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들의 중장년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13가지 정책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
- 모든 항목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4점 척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3점 이상의 점수(중장년 일자리 3.37>신체건강 3.28>가족돌봄 3.20>노후대비 재무설계 3.15)
- 성별 차이 : 여성들은 신체건강 증진,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웰다잉 교육, 안전 확인을 위한 주기적 연락, 중장년층 취업지원,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 등 많은 항목에서 남성보다 정책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 특히 건강관리, 중장년 일자리, 문화와 취미활동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선호도도 높은 동시에 남성보다 여성의 수요가 높은 정책으로 조사됨.
- 가구형태별 차이 :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은 1인가구(3.15)보다 다인가구(3.23)에서 더 수요가 높았으며, 반면 안전확인을 위한 주기적 연락·방문(1인가구 2.99, 다인가구 2.90),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1인가구 3.00, 다인가구 2.93)에서는 1인가구들의 필요성 인식이 조금 높게 나타남.

7)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시설/공적 서비스 수요 :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인가구나 다인가구 응답자 모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적 공간은 '큰 비용 없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시설'임(다인가구 3.12 > 1인가구 3.04)
- 두 번째로 선호하는 공간은 다인가구의 경우 '고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함께 자녀와 노부모를 돌볼 수 있는 공간(다인가구 3.06 > 1인가구 2.95)인 반면, 1인가구에서는 '바쁜 업무나 이동 중 잠시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둠(다인가구 2.97 < 1인가구 3.00).

7)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시설/공적 서비스 수요: 성별



- 모든 항목에서 여성들의 척도점수 평균이 높음 - 이는 사는 곳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여성들의 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 공간,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담이나 소규모 모임이 제공되는 공간임

6. 제언: 가족지원 서비스의 방향

- 1) 기본방향
- 2) 생활 SOC 복합화와 공간운영
- 3) 전달체계 운영에서의 고려사항

1)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 : 기본방향

(1) 확장성 · 개방성

-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확장성 및 개방성을 지향
- 특정 가족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보다는 보편적 가족정책, 개인화된 서비스를 확장하는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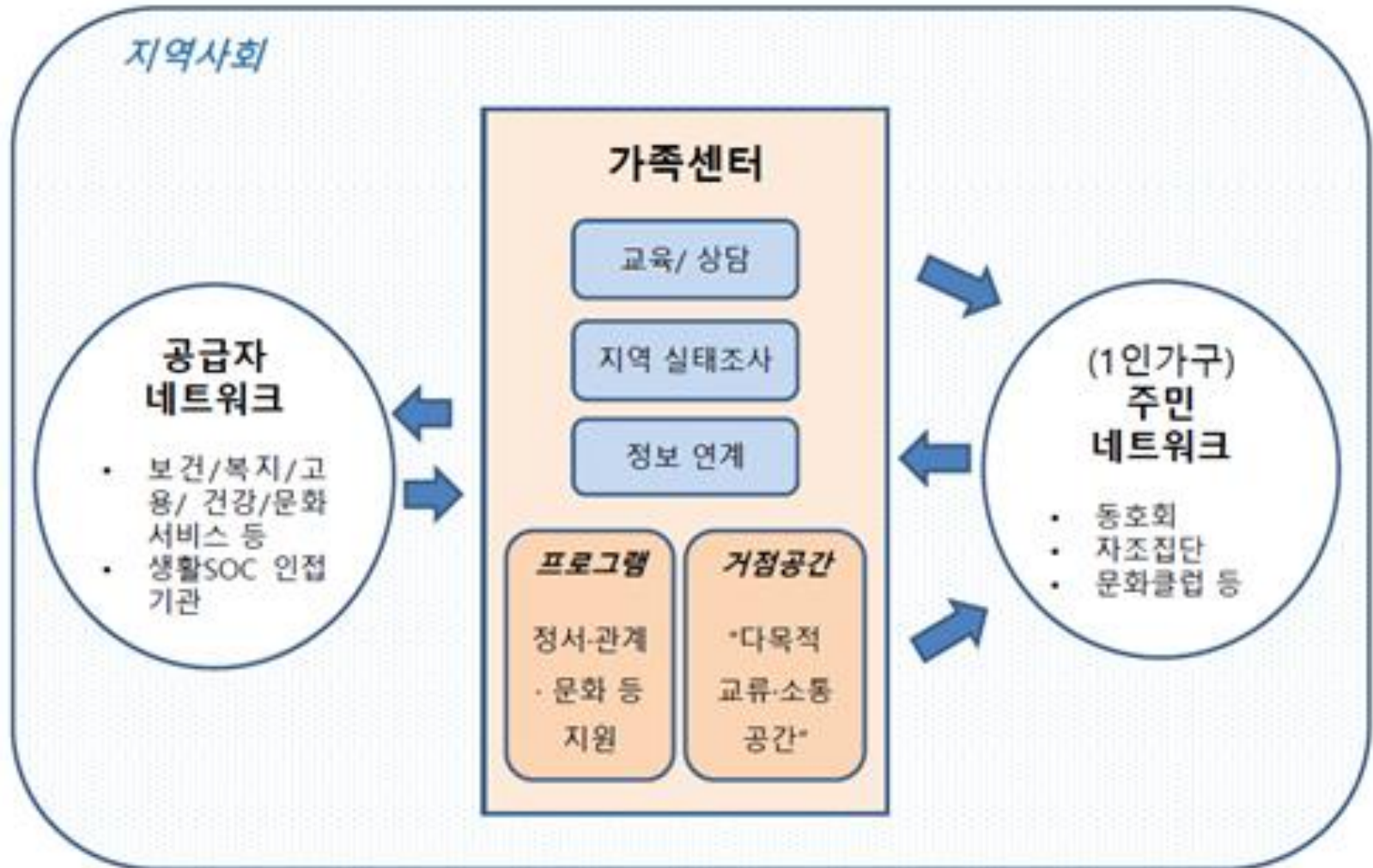
(2) 지역사회 접근성

-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의 접근성,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 강화
- 지역 내 1인가구의 실태 파악이 선행될 필요
될 것

(3) 주민네트워크 연계

- 지역사회 기반 포괄케어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는 환경
-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와 주민 참여자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촉진자 역할

가족센터 : 공급자 네트워크와 주민 네트워크



2) 생활 soc 복합화와 1인가구를 고려한 공간운영

생활 SOC – “포용적 혁신공간”

- 산업·기술·문화 등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에서 시민들이 일과 삶을 함께 영위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복지의 확대
-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좋은 삶의 적정 수준(national minimum)을 가까운 지역공동체 안에서 충족하는 것을 지향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서 생활 SOC : 4가지 측면 (김유란, 2020)

- 접근성 : 일상생활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집객성 : 다양한 계층의 이용 - 세대간 교류와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
- 참여성: 이용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 지역 커뮤니티 수렴·발산의 거점
- 사업의 시급성: 생활SOC가 부족한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2) 공간운영 : “다목적 교류·교류공간”과 베이비부머 1인가구

개념	방향	비고
접근성	기능별로 구획된 고정 공간 → 가변형 다기능 열린 공간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개방성	특정 집단을 위한 맞춤형 공간 이미지 →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구성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참여성	내담자, 피교육자로서 공간 활용 + 주민주도적 참여, 소모임에 친화적 공간 구성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교육실
포용성	베이비부머 1인가구의 필요와 수요 파악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휴게·사무공간 제공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상담실

조사결과에 기반한 1인가구 서비스 예시

유형	주요 참여집단	프로그램/ 공간 및 전달체계 활용
1) 생활리스크 중첩집단의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1인가구로 생활한 사람 - 정신건강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남성 1인가구 - 삶의 질 낮은 여성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실태 파악 - 상담을 통한 지원,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결 - '휴먼링크'(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한 일대일 정보제공과 관리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2) 외로움. 정서지원에 특화된 상담+문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로움, 소외감, 사회적 고립감에 장기 노출된 집단 - 정서적 취약성이 높은 남성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연결망, 관계망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참여형 주민 네트워크 형성 - 정서적 지원 + 접근성 향상 - 외로움 치유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상담을 함께 진행
3) 지역참여형 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여가활동에 관심 집단 (비혼, 40대, 여성) - 단순한 문화 소비자에서 참여형 활동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 참여자 주도형 모임 - 참여자들의 거점 공간 제공 (다목적 소통 공간) - 지역 내 문화기관들과 연계

조사결과에 기반한 1인가구 서비스 예시 (2)

유형	주요 참여집단	프로그램/ 공간 및 전달체계 활용
4) 1인가구 사회적 인정 제고 프로그램	-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극복 (여성/비혼/이혼자에 대한 낙인 등)	- 교육 프로그램 (가족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 - 글쓰기, 독서토론 모임 (새로운 가족,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독서 리스트)
5) 자기돌봄, 독립 생활역량 강화	- 독립적 1인 라이프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	- 간단한 집 수선과 셀프 인테리어, 건강 유기농 식단과 채식 요리, 홈트레이닝, 1인 방송 등 활동에 필요한 기구, 장비, 새로운 정보 등 지원 (공간 및 장비 대여/ 교육 프로그램 등)
6) 느슨하고 완만한 공존	- 부담없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느슨한 관계 맺기/비대면 프로그램 구축	- 북카페, 멀티미디어 데스크, 멀티미디어 교육장, 모바일 충전, 빈백/캠핑용 텐트 등 간단한 휴식공간 등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7) 지역주거 특성에 맞는 1인가구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등 콜렉티브 하우스에 거주하는 1인가구 (예비 1인가구, 다양한 세대 포함)	- 지역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민과 이웃 간 관계 형성, 공동관리를 위한 자치회, 문화 프로그램 등.

3) 전달체계 운영에서의 고려사항

전달체계 효율성

- 기존 사업(복지관, 50플러스 센터 등)과 유사중복성 줄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센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접근성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인력양성과 전문성

- 기존 서비스에 몇몇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 새로운 인력과 자원 필요 - 인력 양성 및 관리, 역할 분담과 전문성 규정 등 검토

피드백 시스템

- 생활, 문화, 여가, 정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영역 확장 - 새로운 콘텐츠와 강사진 개발, 외부 자원 연계 필요
- 합리적 평가체계 등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필요

“감사합니다”